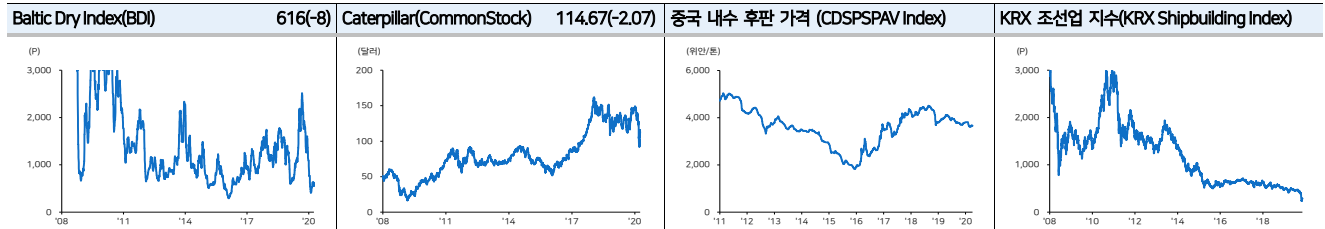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9	20E	19	20E	19	20E
현대중공업지주	3,452.8	18.4	212,000	2.2	-20.2	-34.5	-37.3	9.6	10.5	0.4	0.4	4.6	3.8
한국조선해양	5,421.2	16.4	76,600	-3.4	-28.1	-39.9	-39.4	25.3	22.8	0.5	0.4	1.9	1.8
삼성중공업	2,551.5	16.7	4,050	0.0	-33.6	-43.5	-44.3	-2.4	-82.3	0.4	0.4	-16.0	-0.5
대우조선해양	1,484.8	11.3	13,850	-1.1	-37.6	-47.9	-50.3	22.2	17.1	0.4	0.4	1.7	2.1
현대미포조선	1,138.4	11.7	28,500	2.9	-21.9	-35.4	-38.1	13.2	13.6	0.5	0.5	3.7	3.7
한진중공업	366.4	20.7	4,400	0.8	-7.1	-10.5	-11.7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1,978.7	17.9	20,300	-1.0	-21.8	-40.1	-40.4	9.0	11.6	1.6	1.6	19.2	13.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05.4	20.0	19,500	-2.3	-30.9	-44.5	-44.4	8.1	8.9	0.4	0.4	4.9	4.7
LG넥스원	424.6	4.7	19,300	-0.8	-26.9	-42.6	-38.9	N/A	40.2	N/A	0.6	N/A	1.6
현대로템	1,003.0	3.3	11,800	-0.8	-14.5	-21.1	-24.4	-5.4	-132.6	1.1	1.3	-19.2	-1.1
현대엘리베이터	1,487.8	24.1	54,700	-0.5	-4.7	-16.0	-19.9	30.0	18.5	1.6	1.5	5.0	8.1
두산중공업	941.7	7.3	3,720	4.1	-25.3	-33.0	-35.0	-10.4	20.6	0.2	N/A	-3.4	N/A
두산밥캣	2,040.1	24.7	20,350	2.5	-28.5	-39.3	-40.8	6.8	6.6	0.5	0.5	7.8	7.6
두산인프라코어	833.7	15.7	4,005	9.9	-4.0	-24.6	-27.8	3.1	3.3	0.4	0.3	12.6	9.6
현대건설기계	321.1	9.9	16,300	2.5	-21.4	-44.4	-45.5	4.8	4.8	0.3	0.3	5.1	5.5
현대일렉트릭	233.9	5.5	6,490	-0.8	-29.1	-40.5	-43.8	-1.3	-10.6	0.3	0.4	-14.2	-3.4
하이룩코리아	142.9	44.6	10,500	-1.4	-24.7	-38.8	-45.3	N/A	N/A	N/A	N/A	4.5	4.8
성광벤드	170.5	17.9	5,960	4.6	-27.1	-40.7	-42.4	23.0	20.8	0.4	0.4	2.4	2.6
태광	185.8	15.3	7,010	-2.6	-21.9	-29.8	-31.3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85.1	3.8	6,860	1.8	-30.1	-35.3	-35.0	11.6	6.2	2.0	1.6	19.7	28.6
한국가본	256.3	12.1	5,830	1.2	-26.4	-27.2	-25.5	21.1	7.7	0.8	0.7	4.3	10.0
태웅	103.2	3.8	5,160	29.8	-25.9	-36.3	-42.0	N/A	N/A	N/A	N/A	N/A	N/A
HSD엔진	97.7	2.6	2,965	5.1	-20.7	-34.5	-33.7	-4.0	28.5	0.5	0.5	-11.1	1.8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9p, 중고선가 지수 95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9p, 중고선가 지수는 95p로 전주와 동일함. 대우조선해양이 팬오션에 300,000DWT급 VLCC 1척을 수주했고 남기는 2021년 3분기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대미포조선이 50,000DWT급 메탄올 운반선 7척을 수주했고 남기는 2021~2023년까지 예정. (Clarksons)

신조선 시장 내년에 회복

Clarksons에 따르면, 1분기 잠정 집계된 신조선 발주량이 90여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도됨. 2020년 발주량은 작년 대비 25%, 2018년 대비 50% 감소할 전망이다. 크루즈,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 Offshore선 등이 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Sell-off for tanker futures as Saudi shows renewed appetite for supply cut

탱커 운임 선도 거래(FFAs, Forward Freight Agreements)가격이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급락했다고 보도됨.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들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러시아와 기타 9개 산유국들은 미국의 중재 하에 새로운 합의점 도출을 위한 협상 중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EC, 현대중-대우조선 결합 심사 연기

유럽집행위원회(EC)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를 연기했다고 보도됨. EC는 COVID-19 사태로 인한 혼란 때문에 심사를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서 추후 공지 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LNG 가격 하락으로 FSRU, FLNG 관심 증가

LNG 가격이 낮아지면 새로운 다운스트림 수요가 늘어나고 이것이 운임 시장에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LNG가 석탄 등 다른 경쟁 에너지원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LNG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경우 FSRU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Shell awaits Bonga South West-Aparo go-ahead

Shell사가 주도하는 Bonga South West-Aparo 개발 프로젝트의 입찰이 수 일 내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합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입찰은 이번 주 내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사는 4월 중순에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본 조분석적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분석적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분석적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외 배포 될 수 없습니다.